

##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성중독의 심리사회적 변인과 문제행동 연구\*

남 영 옥\*\*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성중독의 정도와 심리사회적 변인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이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성중독과 각각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문제행동들을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성중독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생 1,69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대상 청소년의 2%정도가 심각한 인터넷 '중증중독' 상태에 있고, 약 47%정도가 중독의 위험에 빠져 있는 '초기 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우울과 충동성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이 나쁠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 중독에 의한 문제행동은 7가지로 유형화되었고,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문제행동을 더 많이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청소년의 0.7% 정도가 심각한 사이버 성의 '중증중독' 상태에 있고, 약 7%는 '초기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의 우울과 충동성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부관계와 부모의 양육행동, 친구관계와 교사관계가 나쁠수록 사이버 성중독에 많이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사이버 성중독은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 심해지며, 사이버 성중독의 정도가 심할수록 성개방성, 성평등성, 성공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인터넷 중독, 사이버 성중독, 심리사회적 변인, 문제행동, 성태도

\*이 논문은 2002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인터넷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최근 몇 년간 급격히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식주 다음가는 생활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터넷은 인간의 생활과 관계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으며 다양한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오랜 생활수단으로서 시행착오나 검증을 거쳐 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생활에 역기능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의 사용은 필수 불가결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자의 수요나 사용시간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전국 1만7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56.6%로서 국민 2명 중 1명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7-19세의 이용률이 93.3%로 가장 높았고, 학력별로는 중학생이 99.8%, 직업별로는 학생이 95.0%로 가장 높았다(한겨레신문, 2002. 1. 15). 이처럼 인터넷 이용 인구 중 청소년층의 수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인터넷 이용에 따른 부작용도 날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의 인터넷 관련 기사나 연구결과들을 보면, 청소년들의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통, 자살이나 자해 사이트 접속,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음란 스팸메일, 사이버 범죄 등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10대들이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다거나 중고생의 30%가 사이버 중독에 빠진 것 같다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10대 청소년 113,94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청소년의 52.5%가 방학기간 하루평균 3시간 이상 인터넷에 접속하고, 56.9%는 하루라도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하였으며, 50.7%의 청소년은 이미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조선일보, 2002. 1. 18).

이처럼 인터넷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중독될 수 있는 위험이다. 15~39세 55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27.6%가 인터넷 초기중독자이고, 3.1%는 중증중독자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자의 30.7%가 인터넷에 중독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10대는 절반에 가까운 46.8%가 인터넷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중증중독자 비율은 10대의 경우 7.0%나 되어 20대의 1.5%와 30대의 2.2%보다 훨씬 많았다(김선우, 2001).

사이버 세계는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 따라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심해지면 현실적응력이 떨어져 자살 사이트에 빠지게 되는 등 극단적인 현실부적응 현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실제보다 과장된 감정을 표출하다 보면 사이버 상의 자신과 실제의 자신을 구분할 수 없게 되고(한겨레신문, 2002. 4. 23),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기가 형성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체성 변화나 탈개인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김현수, 2001). 이러한 현상은 정체성이나 도덕성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서 더욱 큰 문제가 된다.

인터넷이 청소년들에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폐해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접하는 정보의 음란성으로 사이버 성에 중독될 수 있는 위험이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 사이트 접속, 음란 채팅, 사이버 성폭력, 통신을 매개로 한 성매매 등 인터넷을 통한 성적인 활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0-30대 인터넷 이용자 2,26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심영희, 2001)에서 조사대상자의 15%가 성적 욕구를 음란 사이트 및 음란 채팅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집착하는 사이버 성중독증에 걸려 있으며, 이 중 5%는 중독증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익명을 이용해 현실공간에서 맞출 수 없는 성적 환상을 즐긴다는 문항에서 10대의 14%가 응답해, 현실에서 실제로 성관계를 경험하기 어려운 10대들이 사이버 세계를 통해 성적 욕구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사이버 성중독의 정도가 심각한 청소년일수록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사이버 성중독 문제는 이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 있다. 청소년들은 아직 자기 통제성과 성에 대한 통제력이 성인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혼동함으로써 사이버 성폭력은 물론 실제 성폭력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 성중독이나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청소년들의 성관련 정서나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사이버 성중독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인터넷 중독의 전반적인 실태나 인터넷 중독자의 심리적 특성 등과 관련된 영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 중독의 각 하위유형별로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의 하위영역에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이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사이버 성중독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시급하다.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나 모든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사이버 성에 중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어떤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중독되는가를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리사회적 변인들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문제행동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성중독을 유발하는 개인적, 환경적 특성은 무엇이고, 그 결과로서 생긴 문제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성중독의 정도와 심리사회적 변인들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이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성중독과 각각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문제행동들을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성중독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성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적 도구를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신병리에서 중독의 개념은 대체로 물질 사용에 따른 생리적인 의존성과 내성, 금단현상을 동반하여 사회적, 직업적 기능 손상이 뒤따를 때 내려지는 진단이다. 그러나 생리적인 의존성이 약물 이외에도 특정한 행동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즉 강박적인 행동상의 문제로 성적 행위, 도박, 도박과 같은 행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의 경우도 강박적인 행동으로 병리적인 도박중독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 중독의 한 증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Griffiths & Hunt, 1998).

Goldberg(1996)는 인터넷 중독을 개념화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그는 인터넷 중독 개념을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규정하고, DSM-IV의 도박중독장애를 기준으로 인터넷 중독의 준거를 제시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Young(1996a)은 인터넷 중독 개념을 알코올이나 다른 충동조절장애처럼 실재하는 행동장애로 규정하고 DSM-IV에 수록된 약물의존 진단기준을 원용하여 중독 준거를 정하고 있으며, 약물중독과 유사한 의존, 금단, 내성증상이 인터넷 중독에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의존적인 인터넷 사용자들은 중독적인 행동양상을 보이며,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직업적 생활에서 명백하게 방해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Brenner(1997)도 물질남용장애의 진단기준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서 내성, 금단증상, 갈망을 인터넷 중독 준거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진단기준에 의해 인터넷 중독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은 몇 가지 증상에 의해서 단정적으로 정의될 수는 없으며, 증상들의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며 만성화되어 일종의 중독 장애로 진단될 만큼 신체, 심리, 사회 및 직업활동상의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Brenner, 1997; Scherer & Bost, 1997; Thompson, 1996; Young, 1999).

Young 등(1999)은 인터넷 중독을 다양한 행동적 충동조절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장애로 보고, 인터넷 중독의 하위유형을 사이버 섹스중독(cyber sexual addiction), 사이버 관계중독(cyber relationship addiction), 네트워크 강박증(net compulsions), 정보 과몰입(information overload), 컴퓨터 중독(computer addiction)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사이버 섹스중독은 사이버 상에서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이버 섹스나 사이버 포르노그래피를 위해 성인 대화방이나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사이버 관계 중독은 온라인상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몰입하는 것으로 채팅이나 머드게임을 통하여 심리적인 지지 및 친밀감을 얻기 위해 몰두하게 된다. 네트워크 강박증은 충동적이고 강박적으로 온라인 도박이나 쇼핑, 매매를 하고, 정보 과몰입은 강박적으로 웹 서핑이나 자료검색에 몰입하며, 컴퓨터 중독은 컴퓨터 게임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에 관해 강박적으로 몰입

한다.

Suler(2000)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자아 정체감을 실험하고 탐색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불안정감을 통제하게 된다. 둘째, 친밀감과 소속감을 갖게 된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나타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셋째, 가족과 부모로부터 분리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킨다. 물리적으로 가족과 떠나지 않으면서 모험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좌절감을 발산하도록 한다. 인터넷을 통해 빠른 반응과 공격적인 충동을 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맛보게 된다. Young(1997a)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중독되는 원인을 사회적 지지, 성적인 만족, 새로운 인격창출, 숨은 능력의 발현, 인식과 영향력 등의 다섯 가지 특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비록 온라인상에서의 의사소통이 문자에 기반하고는 있지만, 심리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게 함으로써 사람들간에 강한 유대감을 갖게 하게 한다. 그리고 실제로 채팅 룸의 빈번한 주제는 성과 관련된 이야기이며, 온라인상에서의 성은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체 접촉의 위험부담 없이 자유롭게 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하나의 장애로 진단되고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인터넷 중독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독립적인 중독장애로 보기보다는 충동조절장애나 강박장애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청년의사인터넷중독치료센터, 2002). 따라서 인터넷 중독장애의 원인과 병리과정, 진단기준, 치료방법 등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나올 DSM-V에는 하나의 새로운 장애로서 가상현실장애(Cyber Disorder)가 생겨나게 될 예정이어서 그 영향력이 매우 기대된다(송명준 외, 2001).

## 2) 인터넷 중독의 심리사회적 변인

### (1) 개인적 특성

최근 인터넷 중독자들의 우울, 충동성, 외로움, 불안, 자아존중감, 공격성, 대인예민성,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감각추구성향 등의 개인적 특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보고되고 있다(윤재희, 1998 ; 성주은, 1999 ; 송원영, 1999 ; 김종범, 2000 ; 라민오, 2000 ; 박정은, 2000 ; 이소영, 2000 ; 임효정 2000 ; 송명준 외, 2001).

먼저, 인터넷 중독과 우울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Young(1997)은 인터넷의 병리적 사용 결과 실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고립 수준이 증가하며 이것이 우울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았으며, 결국 우울이 인터넷 중독의 선행 요인 중 하나가 된다고 하였다. Gunn(1998)이 인터넷 중독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연령이나 성보다는 우울과 내성적인 성격특성이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Young(1998a)도 우울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낮은 자아존중감, 동기 저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인터넷 사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인터넷의 병리적 사용과 우울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우울한 사람이 인터넷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과 이야기할 수 있고 목소리, 시선 접촉 같은 비언어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과 우울간에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윤재희, 1998; 성주은, 1999; 김종범, 2000)를 볼 때, 청소년의 우울성향이 인터넷 중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제력의 상실은 DSM-IV(1994)에 알코올중독 진단준거의 하나로 포함이 되어있으며 이러한 통제력의 상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격 특징이 바로 충동성이다(이명숙, 1998). 자기통제의 실패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특히 충동조절의 장애 또는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을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용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병적 도박과 같은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분명한 충동조절장애라고 하였다. 충동조절장애의 필수증상은 개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려는 충동이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통제력이 낮아 충동적인 청소년은 현실에서 장애의 더 큰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가상세계에서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기에 인터넷 중독으로 빠지기 쉽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더 충동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송원영, 1998; 윤재희, 1998; 박정은, 2000; 이소영, 2000)을 볼 때, 충동적인 성격 특성이 인터넷 중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치로써 자신이 행하는 일의 성공을 예견하는 수준과 관련된다(Coopersmith, 1981). 자신에 대한 낮은 가치평가가 약물사용이나 인터넷 중독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Tuckle(1995)은 약물중독 현상과 유사한 인터넷 중독의 경우,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심대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미숙하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관계를 맺는 능력이 떨어지며, 집에서 인터넷만 매만지면서 또래의 십대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자아존중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이곤실, 2001 재인용). 이처럼 실생활의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사람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대인관계에 중독되게 된다(이봉건, 1999). Young(1999)은 인터넷 중독자 중 상당수가 만성적인 낮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인터넷의 대인관계에 중독된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2) 가족환경

부부관계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초 체계로서 가족내에서 형성되는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된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부부 및 부모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여러 가지 역할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빈번한 부부간의 불화가 부모와 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며, 부부불화와 자녀의 문제행동의 심각성이나 빈도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들 부모들은 자신들의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을 은닉·배출하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취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를 부정적으로 형성하여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청소년 자녀가 문제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Webster-Stratton, 1989 ; 박현선 외, 1997 ; 김용석, 2000 ; 엄명용, 2001).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초기경험은 매우 중요하고, 이 초기경험 중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아발달과 성격형성, 행동양식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문제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Masterson, 1989). 청소년의 강렬한 분노와 우울 등의 내재화된 문제도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거부되고 버려졌다는 느낌에 의해 유발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비행으로까지 발전하기 쉬운 조기비행자일수록 비행을 시작한 요인이 다른 사회적 요인보다는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기인한다는 것이다(Patterson 외, 1989).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이거나 적대적, 제한적이고 비인관적일 때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은 높아지는데 비해, 합리적인 양육행동이나 애정적이고 관심을 보이며 일관성있는 통제행동을 보일 때 자녀의 문제행동은 낮아진다고 한다(Bowlby, 1988 ; Liberman, 1997).

최근의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지속적인 자녀 감독과 자녀에 대한 분별된 부모 지지의 제공은 청소년 비행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고(엄명용, 2001),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이 부모의 양육행동임이 밝혀졌다(김용석 외, 2000).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겠다.

가족은 청소년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환경으로서 정서적 지지기능과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가족에게 느끼는 지지는 청소년의 인성과 성격 발달,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Young(1998)은 사람들이 가족에서 고립감을 느낀다면,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고, 감추어져 있는 면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빠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떤 가족 내에서 사이버 중독증 환자로 진단되는 것은 인터넷에 강박적인 청소년이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그 가족 내에 있다는 것이다(Young, 1999).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가족성원들이 상호간에 지지적이지 않고 냉담하다면, 청소년 자녀는 인터넷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는 없으나, 여러 선행연구들을 볼 때, 부부갈등과 역기능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을 포함하는 가족의 심리역동적 환경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3) 사회환경

친구관계는 자발적인 상호의존적 관계라는 새로운 대인관계의 시초가 되며, 친구는 가족원들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지지와는 다른 성질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지원이다(황수정, 2000). 따라서 청소년이 친한 친구를 갖지 못하면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가치감이 저하되며, 피상적인 친구관계나 아예 친구가 없는 십대들은 외로움, 우울 그리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호소하게 된다. 청소년

년들은 또래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에서 고통을 받을 때에도 또래들로부터 위안을 얻을 수 있다( Sullivan, 안석, 2000 재인용).

교사 역시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으로 지적되는데,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이다. 그러나 지금의 입시위주의 교육체제하에서 교사와의 관계에서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불신을 갖게 되고 선생님들 또한 학생들에게 무관심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교사와의 관계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심리적 압력을 유발하여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된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네트워크 게임, 오락정보 등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오락성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쉽게 인터넷에 몰입하게 한다(조춘범, 2001).

또한 학교생활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은 현실의 세계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거나 놀아줄 친구가 없기 때문에 쉽게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인터넷에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익명성의 특성이 있는 인터넷에서는 소외되고 자신감이 결여된 자기 자신에 대해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은 쉽게 인터넷에 중독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 3) 인터넷 중독에 의한 문제행동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지식기반의 정보와 이러한 정보를 통해 학습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지나친 음란물 접촉, 통신, 그리고 게임에 대한 몰입은 청소년들에게 중독적 현상으로 나타나 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막대한 부정적 측면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인터넷 중독 현상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보면, 신체적으로는 팔과 어깨,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소화불량, 수면부족, 두통이 있으며, 심리적으로 우울과 조울, 외로움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학업과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적 관계 영역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Young, 1996, 1998 ; Goldberg, 1996).

Young(1996)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독자들의 53%가 심각한 대인관계 문제를 보고 하였는데, 가까운 친구관계, 연인관계에서부터 심지어 부부관계,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enner(1997)는 90일 동안의 인터넷 사용을 통해서 나온 문제행동 분석 결과, 563명의 사용자들 대부분이 인터넷 활동 때문에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과 여가시간 활용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과도한 인터넷 사용자들은 학업수행이나 대인관계에 문제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Scherer, 1997 재인용). 이처럼 인터넷에 중독된 것으로 분류된 집단은 다른 중독현상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청소년의 인터넷의 중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들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면에서는 신체적인 문제와, 수면문제, 학업성적 저하가 있으며, 가족에게는 가족간의 갈등과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면에서는 사회활동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여 전반적인 사회



활동 참여가 줄어들게 되며, 친구와의 갈등이 증가하게 된다(안석, 2000). 최근 동아일보 경제부(2002)가 인터넷 이용실태를 알아본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54.7%가 컴퓨터 사용으로 가족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하였고, 대인관계가 위축되거나(9.8%), 운동량이 부족하며(6.3%), 건강이 나빠지는 점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으며, 컴퓨터가 없으면 금단현상을 느끼는 사람도 54.0%나 되었다(동아일보, 2002. 2. 20).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올라온 청소년 248명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이형초, 2001)에서도 인터넷 이용 청소년들이 인터넷 강박적 사용 및 금단증상(71%), 신체 및 행동상의 문제(69%), 학업문제(51%), 심리적인 문제(33%), 대인관계 문제(31%), 현실구분의 장애(20%)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 4) 사이버 성중독

인터넷은 정보화 사회를 앞당긴 반면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으며, 성의 영역도 인터넷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로 인해 나타난 사이버 성중독 현상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국립섹스중독 및 강박증협회는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 중 20만명 정도가 심각한 사이버 성중독 상태이거나 회복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Young(1999)은 사이버 성중독을 사이버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 채팅방을 통해 사이버 섹스에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 '인터넷 중독의 특수한 형태'로 단정하면서, 인터넷 중독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이 형태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심각하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거나 치료되지 않은 성 기능 장애, 기존에 성적 도박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중독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성 중독자들은 비용이 적고 남에게 보이거나 성병에 걸릴 두려움도 없어 그들의 성적 충동을 채우기 위해 인터넷을 새롭고 안전한 장소로 여기고 있다.

Young(2001)은 사이버 성중독에 이르게 되는 ACE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어떻게 인터넷이 성적으로 왜곡된 행동을 방지하며 혹은 장려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인터넷상에서의 성적 행위의 대부분은 익명성(anonymity)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익명성은 사이버 섹스에서의 무정체성 혹은 비주체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성적 경험의 성질과 내용 등에 대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공해 준다. 익명성은 일상생활에서 감추거나 억제되어진 성적 환상을 재현하는 힘이기도 하다. 둘째, 인터넷에서의 성은 편리성(convenience)을 가지고 있는데, 편리성은 시간과 대상에 무관히 인터넷 섹스에 접근하기 쉬운 인터넷의 특성으로, 사이버 포르노사이트와 성인 채팅사이트에서의 접근의 편리성이 인터넷 사용의 충동적인 패턴에 빠지게 하는 매개물로 작용한다. 셋째, 현실탈출(escape)은 인터넷 성에서의 경험을 통해 현실에서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탈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사이버 성에 중독되는 것이 성적 자극에 의해서지만 점차로 현실로부터 도피해 있다는 것이 강화물로 작용한다. 이처럼 사이버 성 중독의 경우 익명성, 편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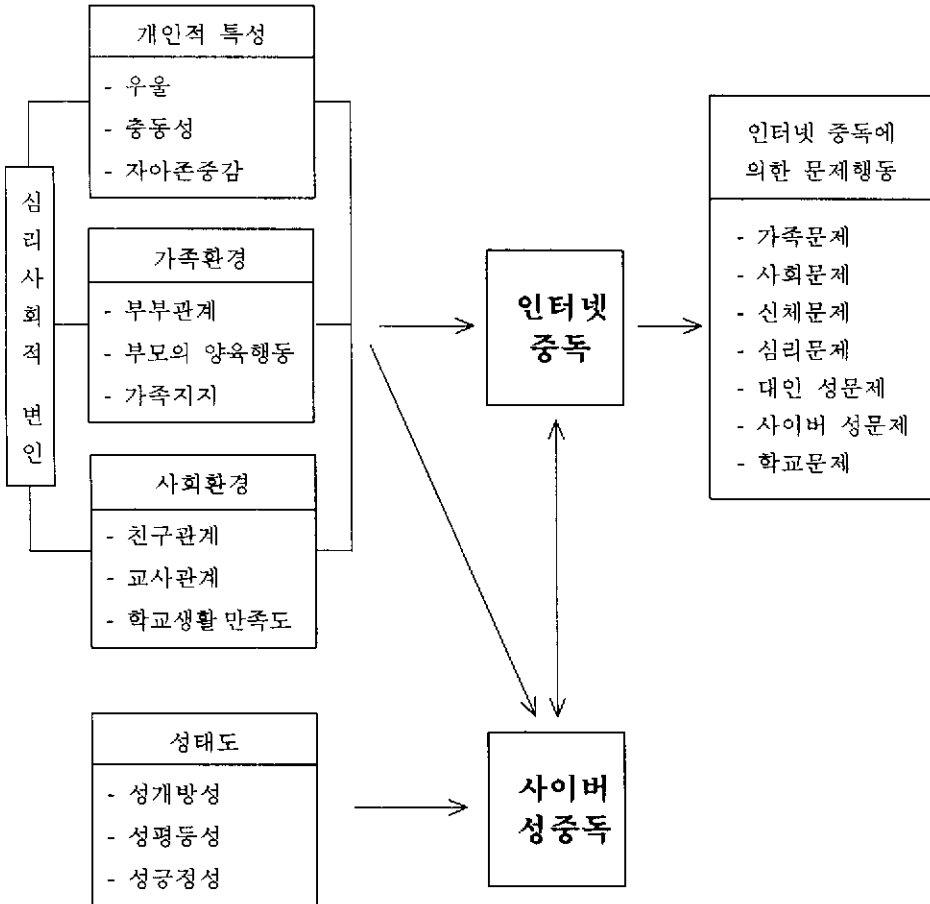
현실탈출 등이 인터넷에 이르게 한다고 본다(Young, O'Mara, Buchanan, 2001).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사이버 성중독은 청소년들에게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독현상이다. 인터넷 음란물 중독현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지속적으로 음란물에 접근하고, 밤새도록 보고 낮에 졸거나, 부모와 대립하기도 하며, 죄의식으로 결벽증에 걸리거나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인터넷중독정보센터, 2001).

고등학교 8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홍은숙, 2001)에서 청소년의 94.6%가 인터넷 음란물을 시청한 적이 있다고 하여 사이버 시대에서 인터넷 음란물은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란물을 접한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성관련 정서 및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높았으며, 일부 청소년은 이미 인터넷 음란물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어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이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된 경우 음란물을 본 후의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성비행의 가능성과 성충동을 성폭행으로 해결하거나 근친상간이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하게 하는 왜곡된 성의식 및 태도 등이 나타날 수 있다(조아미, 2000).

인터넷 음란물 중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안정임(200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59%가 인터넷 음란물 중독 가능성을 가지며, 구체적으로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위해 음란물을 찾는 행위(30.1%), 음란물 이용 중 자위행위 경험(10.5%), 사이버 섹스 경험(5.9%), 채팅 상대와의 실제 성 경험(4.0%) 등으로 나타났으며, 음란물 접촉으로 인한 죄책감 경험도 27.4%에 이르렀다. 또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2001)의 조사결과에는 음란행위 경험 청소년의 70%가 음란사진, 만화,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음란 채팅을 했으며, 10%는 오프라인상의 성관계, 성매매나 알선에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1. 4. 23). 이와 같이 인터넷 음란물 접촉으로 인한 왜곡된 성의식 및 태도가 부정적인 성관련 행동으로 이어져 사이버 성폭력은 물론 실제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도 크다.

### 5) 연구의 분석틀



### 3.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중학교과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본 조사의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교 학생은 4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1개 학교 당 4개 학급씩 총 16개 학급학생 634명

을 조사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남자고등학교 2개 학교에서 6개 학급, 여자고등학교 2개 학교에서 4개 학급학생 모두 438명을 조사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는 남자고등학교 4개 학교에서 12개 학급, 여자고등학교 2개 학교에서 6개 학급학생 모두 660명의 학생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1,732명 중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최종 1,692명의 조사자료만 분석에 이용하였다.

## 2) 조사도구

(1) 인터넷 중독 척도 : 온라인 중독센터(COLA : 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Young(1998)이 만든 인터넷 중독검사(Internet Addiction Test : IAT)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20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Young은 20개 문항의 합계 점수가 20-49점인 사람은 평범한 이용자로 가끔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기통제가 가능하며, 50-79점은 인터넷으로 인해 때때로 혹은 자주 문제를 경험하는 초기 중독으로 조심해야 할 상태라고 하였다. 80-100점은 인터넷 중독 중증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태이다. 인터넷 중독 자가테스트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권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8855로 나타났다.

### (2) 개인적 특성

① 우울 - Beck이 고안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총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63점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울의 평가는 선행연구들에서 각 요인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21개의 항목들이 모두 슬픔, 실재감, 죄책감, 불면증, 자살, 피로감 등과 같은 각기 상이한 영역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8804로 나타났다.

② 충동성 - 충동성 수준 측정을 위해 BIS II판(Barratt Impulsiveness Scale II)을 이현수(199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인지 충동성, 운동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을 평가하는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7878로 나타났다.

③ 자아존중감 - Rog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 Esteem Scale)를 이영자(1996)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즉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7534로 나타났다.

### (3) 가족환경

① 부부관계 - 청소년 부모의 부부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Porter와 O'Leary(1980)가 개발한 부부

불화 척도를 김준호와 김선애(1996)가 번안 사용한 문항 중 2개 하위요인 5개 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들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8408로 나타났다.

- ② 부모의 양육행동 - 부모-자녀결합형태 측정도구 PBI (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Parker 등(1979)이 개발한 것을 송지영(199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총 25항목으로 돌봄 12항목, 과보호 1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7999로 나타났다.
- ③ 가족지지 - 가족지지는 Duban과 Ulman(1989)이 사용한 가족지지 척도와 박지원(1986), 김명숙(1994) 등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참고로 이명화(1998)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 중 가족지지와 관련된 5문항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가족지지를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9151로 나타났다.

(4) 사회환경

- ① 친구관계 - 친구들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척도는 Duban과 Ulman의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를 이명화(199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지지 평가척도 중 친구지지와 관련된 5문항을 사용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8953으로 나타났다.
- ② 교사관계 -교사와의 관계는 Duban과 Ulman의 사회적 지지 평가척도를 이명화(1998)가 번안하여 사용한 문항 중 교사지지와 관련된 5문항을 사용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7929로 나타났다.
- ③ 학교생활 만족도- 조준범(2001)이 사용한 학교생활 만족도 척도에서 학교교육과정 및 입시체제 만족에 관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6761로 나타났다.

(5) 인터넷 중독에 의한 문제행동 : 문제행동들에 대한 질문은 K-CBCL의 척도와 박용권의 문제행동척도를 참고하여 미국 심리학회와 교육단체차문협회가 제시한 영역에 맞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하위 영역은 가족문제, 사회문제, 신체문제, 심리문제, 대인 성관계문제, 사이버 성문제, 학교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문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596, 사회문제 .8214, 신체문제 .8568, 심리문제 .7936, 대인 성문제 .7897, 사이버 성문제 .8418, 학교문제 .8036으로 각각 나타났다.

(6) 성태도 : 성태도는 DeGaston, Weed와 Jensen(1996)의 연구와 이정은(1998) 등의 연구를 참조로 하여 이명화(1998)가 만든 성태도 척도에서 성개방성 5문항, 성평등성 4문항, 성공정성 4문항을 포함하여 전체 13문항을 사용하였다. 성공정성은 성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러운 정도이며, 성평등성은 성에 대하여 남녀간의 차별없이 동등하게 보는 정도를 말하며, 성개방성은 성행동에 대해 윤리, 도덕적 기준보다 관대한 정도는 나타낸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6050으로 나타났다.

(7) 사이버 성중독 : Young이 고안한 사이버 섹스중독 척도(Cyber Sexual Addiction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Young이 인터넷 중독척도에서 사용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5점 척도로 각각 평가한 후 그 합계 점수가 24점 이하는 '평균이용집단', 25점~39점 이하는

‘초기중독집단’, 40점 이상은 ‘중중중독집단’으로 구분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8922로 나타났다.

### 3)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작성된 설문지를 통하여 2002년 1월 28일부터 2월 20일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중, 고등학교를 접촉하여 설문조사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설문조사를 허락한 학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의뢰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SPSS PC<sup>+</sup>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먼저 기본적인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적 통계분석을 가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 인터넷 중독에 얼마나,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인터넷 중독으로 나타나는 문제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하였다. 이밖에도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라 문제를 야기시키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ANOVA 분석도 가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조사대상자의 기본속성

〈표 1〉 조사대상자의 기본 속성

구분	인구학적 특성	사례수	구성비(%)
	전체	1,692	100.0
학교별	중학교	606	35.8
	인문계 고등학교	432	25.5
	실업계 고등학교	654	38.7
학년별	중학교 1학년	67	4.0
	중학교 2학년	539	31.9
	고등학교 1학년	428	25.3
	고등학교 2학년	658	38.8
성별	남학생	1004	59.3
	여학생	688	40.7

본 연구는 중학생 606명(35.8%)과 고등학생 1,086명(64.2%)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고등학생 1,086명 중 인문계 학생이 432명(25.5%)이었고, 실업계 학생이 654명(38.7%)이었다. 중학생 중에는 1

학년이 67명(4.0%)이었고, 2학년이 539명(31.9%)이었으며, 고등학생 중에는 1학년이 428명(25.3%)이었고 2학년이 658명(38.8%)이었다. 한편 이들 연구대상자 전체를 남녀로 구분해 보면, 남학생이 1,004명(59.3%)이었고, 여학생이 688명(40.7%)이었다.

(2) 인터넷 이용 변인에 따른 조사대상자 특성

이들 연구대상자를 인터넷 이용에 따르는 각 변인별로 구분하여 분포를 나타낸 것이 <표 2>이다. 연구대상자 1,692명의 평균 인터넷 이용기간은 31.55개월(약 2년 8개월)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의 주간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2.10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장소로 연구대상자 전체의 87.4%(1,479명)가 집을 꼽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9.9%(168명)가 PC방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인터넷 이용 변인별 조사대상자 특성

인터넷 이용 변인	사례수(%) / 평균(SD)	
평균 인터넷 이용기간	31.55개월(14.41)	
주간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12.10시간(12.56)	
인터넷 주 이용장소	집	1,479(87.4)
	친구집	12( .7)
	학교	15( .9)
	PC방	168( 9.9)
	기타	12( .7)
	무응답	6( .4)
인터넷 설치 장소	본인의 방	623(36.8)
	다른 형제의 방	292(17.3)
	부모님의 방	156( 9.2)
	거실	411(24.3)
	형제와 쓰는 방	118( 7.0)
	무응답	92( 5.4)
부모 인터넷 이용여부	아버지만 이용	344(20.3)
	어머니만 이용	195(11.5)
	두분 다 이용	482(28.5)
	두분 다 이용 안함	663(39.2)
	무응답	8( .5)

또한 집의 컴퓨터 설치장소로는 청소년의 본인의 방에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자가 36.8%(623명)로 가장 많았으며, 거실에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자가 24.3%(411명)로 그 다음 순이다. 이밖에 다른 형제의 방 17.3%(292명), 부모님의 방 9.2%(156명), 형제와 쓰는 방 7.0%(11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님의 인터넷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인터넷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0.3%(1,021명)이었으며, 부모님 두 분 다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28.5%(482명)

로 나타났다.

## 2) 인터넷 중독 및 심리사회적 변인

### (1) 인터넷 중독 현황

〈표 3〉 기본 속성 변인별 인터넷 중독집단 분포

단위 : 명(%)

기본 속성		인터넷 중독			전체	Pearson $\chi^2$ - value	df	sig.
		평군이용 집단	초기중독 집단	중증중독 집단				
전체		865(51.1)	793(46.9)	34(2.0)	1,692	-	-	-
학교별	중학교	313(51.7)	277(45.7)	16(2.6)	606	6.530	4	.163
	인문고	229(53.0)	200(46.3)	3(7)	432			
	실업고	322(49.2)	317(48.5)	15(2.3)	654			
학년별	중학교 1학년	42(62.7)	23(34.3)	2(3.0)	67	12.603	6	.050
	중학교 2학년	271(50.3)	254(47.1)	14(2.6)	539			
	고등학교 1학년	204(47.7)	212(49.5)	12(2.8)	428			
	고등학교 2학년	347(52.7)	305(46.4)	6 (.9)	658			
성별	남학생	522(52.0)	460(45.8)	22(2.2)	1,004	1.471	2	.479
	여학생	342(49.7)	334(48.5)	12(1.7)	688			

앞에서 제시한 인터넷 중독 기준에 맞추어 연구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척도 점수를 합산한 후 세 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대상자의 기본속성 변인별로 분포를 나타낸 것이 〈표 3〉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연구대상자의 51.1%(865명)는 '평군이용집단'에 포함되었으며, 46.9%(793명)는 '초기중독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2.0%(34명)는 '중증중독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평군이용집단에 포함된 분포의 비율은 인문계 고등학생이 53.0%로 가장 높았으며, 초기중독집단에 포함된 분포의 비율은 실업계 고등학생이 48.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증중독집단은 오히려 중학생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평군이용집단에 포함된 분포의 비율은 중학교 1학년이 62.7%로 가장 높았고, 초기중독집단에 포함된 분포의 비율은 고등학교 1학년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중증중독집단은 중학교 1학년(3.0%)과 고등학교 1학년(2.8%)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평균이용집단과 중증중독집단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초기중독집단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별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청소년의 46.9%가 초기중독자이고, 2.0%는 중증중독자로 나타나 전체 48.9%가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46.8%가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김선우(2001)의 연구와, 청소년의 37.8%가 초기중독자, 2.7%가 중증중독자로 분류되어 약 40%가 인터넷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난 서주현(200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이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인터넷 중독의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본 항에서는 인터넷 중독증상이 세 가지 심리사회적 변인군과 각각 어떤 관계에 있고 각각의 심리사회적 변인군이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심리사회적 변인군은 개인적 특성 변인군, 가족환경 변인군 및 사회환경 변인군이다. 이들 세 가지 변인군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인인 인터넷 중독 변인과 다중회귀분석하여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① 인터넷 중독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인과관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군 중 개인적 특성 변인군과 다중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4>이다. 개인적 특성 변인군은 '우울', '충동성' 및 '자아존중감'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 중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 즉, B값의 절대값(기울기)이 가장 큰 변인은 '우울'(.403)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충동성'(.307)이었으며, '자아존중감' 변인은 기울기가 -.139로 세 변인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때 함수의 설명력(R<sup>2</sup>)은 .163이며 F 유의수준(sig. F)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인터넷 중독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상수	독립변인 -B값			R <sup>2</sup>	F	sig. F
		우울	충동성	자아존중감			
인터넷 중독	12.204	.403	.307	-.139	.163	109.175	.000
SE	3.561	.040	.030	.058	Method = stepwise		
T	3.427	10.145	10.225	-2.389			
sig. T	.000	.000	.000	.017			

다시 말해서 우울과 충동성의 정도가 클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더욱 심하고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더욱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 중 우울과 충동성은 낮추고, 반대로 자아존중감은 높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성주은(1999)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우울, 신체화, 공포불안, 불안, 강박 등의 성격적 특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과 우울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윤재희(1999)가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인터넷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우울하고 충동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소영, 2000). 이러한 인터넷 중독과 성격특성을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 ② 인터넷 중독의 가족환경에 대한 인과관계

〈표 5〉 인터넷 중독의 가족환경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상수	독립변인 -B값			R <sup>2</sup>	F	sig. F
		부부관계	부모의 양육행동	가족지지			
인터넷 중독	65.163	-	-.356	-	.049	86.748	.000
SE	1.652	-	.038	-	Method = stepwise		
T	39.437	-	-9.314	-			
sig. T	.000	-	.000	-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군 중 가족환경 변인군과 다중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5〉이다. 가족환경 변인군은 '부부관계',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지지'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세 변인 중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부모의 양육행동' 변인 1개 뿐이었으며, 나머지 2개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때 이 함수의 설명력은 .049이며, F 유의수준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부모의 양육행동' 변인은 B값이 -.356으로 인터넷 중독에 '부(-)'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족환경 변인 중 부모의 양육행동이 좋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을 줄어줄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비합리적이고, 거부적이며, 권위적이고 수직적일수록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해진다는 연구결과(박정은, 2000; 윤지영, 2001; 조춘범, 2001)와 일치하고 있다. 즉, 역기능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로 하여금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인터넷 중독의 사회환경에 대한 인과관계

〈표 6〉 인터넷 중독의 사회환경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상수	독립변인 -B값			R <sup>2</sup>	F	sig. F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인터넷 중독	57.479	-	-	-.593	.030	52.623	.000
SE	1.071	-	-	.082	Method =stepwise		
T	53.686	-	-	-7.254			
sig. T	.000	-	-	.000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군 중 사회환경 변인군과 다중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6〉이다. 사회환경 변인군은 '친구관계', '교사관계' 및 '학교생활 만족도'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세 변인 중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학교생활 만족도' 변인 1개 뿐이었으며, 나머지 2개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때, 이 함수의 설명력은 .030이며, F 유의수준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학교생활 만족도' 변인은 B값이 -.593으로 인터넷 중독에 '부'(-)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환경 변인 중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경향을 줄어줄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에 중독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조춘범, 2001)와 일치한다. 학교교육이 붕괴되고 있는 현 추세에서 앞으로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인터넷에 중독되는 청소년들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인터넷 통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을 사전에 발견하여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심리사회적 변인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심리사회적 변인군 중에서는 '개인적 특성' 변인군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여 주었다. 개인적 특성 변인군 중에서 '우울'과 '충동성' 변인은 인터넷 중독에 '정(+)'의 영향을, 그리고 '자아존중감' 변인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이밖에도 가족환경 변인군 중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변인만이 '부'(-)의 영향을, 그리고 사회환경 변인군 중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 변인만이 역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우울과 충동이 높아지는 것을 억제해 줄 필요가 있고,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욱 긍정적이고 적절하게 하며, 학교생활에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인터넷 중독과 문제행동

본 항에서는 인터넷의 이용으로 인해 파생되는 갖가지 현상들 중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어떤 유형과 양상을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인터넷 이용에 의한 문제행동 유형

인터넷의 과다 또는 왜곡된 이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38개 하위척도로 구성하고 이를 요인분석한 결과, Eigen Value 1 이상인 요인이 7개였으며, 이들의 누적 설명변량은 58.2%로 집계되었다. 각 요인에 포함된 개별 문항을 의미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각 요인의 특성을 정의한 것이 <표 7>이다.

<표 7> 문제행동의 유형

요 인	유 형
요인 1	가족문제
요인 2	사회문제
요인 3	신체문제
요인 4	심리문제
요인 5	대인 성문제
요인 6	사이버 성문제
요인 7	학교문제

요인 1은 가족과의 대화부족, 부모님과 갈등 야기, 집안일 소홀 등의 의미가 내포된 척도들끼리 묶여 있어 '가족문제'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요인 2는 친구를 무시하거나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인터넷 상에서 만난 사람과 더 가깝게 지내며, 욕설을 하거나 타인을 고려치 않는 문제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문제'로 유형화하였다.

또 요인 3은 인터넷을 하고 난 후 피로감과 두통을 느끼고, 눈과 목, 어깨, 허리 등이 아프다고 하는 의미들이 묶여 있어 '신체문제'로, 요인 4는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초조하고, 하지 않을 때도 인터넷을 생각하며 인터넷의 접속내용에 따라 기분이 좋아졌다 슬퍼졌다 하는 등의 의미들이 묶여 있어 '심리문제'로, 요인 5는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성관계 요구 및 성적 행동을 해본 적이 있다는 등의 의미들이 묶여 있어 '대인 성문제'로, 요인 6은 인터넷에서 음란 사이트를 자주 보고, 음란 사이트를 친구들에게 알려주며, 음란 채팅을 한다는 등의 의미들이 묶여 있어 '사이버 성문제'로, 끝으로 요인 7은 인터넷을 하느라 학교에 지각하고 성적이 떨어지며, 학교 과제물을 못해 선생님에게 혼난다는 등의 의미들이 묶여 있어 '학교문제'로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형화된 문제행동은 미국심리학회가 인터넷 중독의 분야별 문제로 신체문제, 가족문제, 학업문제, 사회문제, 경제문제 등으로 분류한 것과, 안석(2000)이 인터넷으로 인한 문제행동으로 신체문제, 가족문제, 학교문제, 사회문제, 인터넷 문제로 분류한 내용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대인 성문제와 사이버 성문제가 분리되어 유형화된 것은 최근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성의식 및 태도의 변화와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중독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인터넷 이용에 의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7가지로 유형화한다는 것은 인터넷의 부정적인 산물을 체계적으로 정의하여 본다는 의미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2) 인터넷 중독집단간 문제행동의 차이

<표 8> 인터넷 중독집단간 문제행동 평균점수<sup>1)</sup> 분산분석 결과

문제행동 유형	평균이용집단 (집단 1, n=865)	초기중독집단 (집단 2, n=793)	중증중독집단 (집단 3, n=34)	F	P	Scheffe test
1 가족문제	1.909(.641)	2.835(.724)	3.779(.985)	444.893	.000	집단 1과 2 집단 1과 3 집단 2와 3
2 사회문제	1.616(.516)	2.285(.593)	3.464(.682)	423.056	.000	"
3 신체문제	2.382(.801)	3.015(.832)	3.724(1.313)	147.140	.000	"
4 심리문제	1.807(.585)	2.600(.691)	3.809(.854)	420.778	.000	"
5 대인 성문제	1.165(.482)	1.321(.705)	1.490(.775)	16.806	.000	집단 1과 2 집단 1과 3
6 사이버 성문제	1.565(.723)	1.886(.867)	2.574(1.293)	51.292	.000	집단 1과 2 집단 1과 3 집단 2와 3
7 학교문제	1.610(.579)	2.346(.756)	3.500(.907)	333.079	.000	"

1) 평균점수는 5점: 항상 발생, 4점: 자주 발생, 3점: 가끔 발생, 2점: 거의 없음, 1점: 전혀 없음

인터넷의 이용에 따르는 문제행동 유형 7가지를 유형별로 척도의 평균점수를 구하여 인터넷 중독 집단간 (평균이용집단 - 초기중독집단 - 중증중독집단) 차이를 검증하고자 ANOVA 분석을 한 결과가 <표 8>이다.

먼저 7가지 문제행동 유형 모두 세 집단간 평균점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가지 문제행동 유형 모두 중증중독집단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평균이용집단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의 빈도와 정도가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평균점수의 차이를 개별 문제행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가족문제'에서 중증중독

집단의 평균점수는 3.779로서 평균이용집단의 점수 1.909보다 현격히 높음을 알 수 있다. 3점을 중앙점으로 볼 때 평균이용집단과 초기중독집단의 평균점수는 3점 미만으로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중증중독집단은 거의 4점대에 이르는 평균점수를 보여 가족관계 문제가 다소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문제'에서 중증중독집단의 평균점수도 3.464로서 평균이용집단의 점수 1.616보다 현격히 높으며, 역시 3점을 중앙점으로 볼 때 평균이용집단과 초기중독집단의 평균점수는 3점 미만으로서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중증중독집단의 평균점수는 3점보다 다소 크게 나타나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신체문제'는 중증중독집단과 초기중독집단의 평균점수가 각각 3.724와 3.015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이용집단도 2.382의 평균점수를 보여 타 문제행동의 점수에 비해 큼을 알 수 있다. 즉, 인터넷의 이용에 의해 가장 민감하게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신체문제'이며,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약간씩은 문제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넷째, '심리문제'에서 중증중독집단의 평균점수는 3.809이며, 평균이용집단의 평균점수는 1.807로서 양극 집단간 가장 큰 점수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기중독집단의 평균점수도 중앙점 3점에 못 미치고 있어 인터넷 중독상태가 되면 '심리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대인 성문제'는 평균이용집단-초기중독집단-중증중독집단 모두 평균점수가 1.5점 미만으로 나타나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집단간 평균점수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이용집단과 초기중독집단, 또 평균이용집단과 중증중독집단간의 차이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이버 성문제'에서 중증중독집단의 평균점수는 2.574, 초기중독집단은 1.886, 평균이용집단은 1.565로 집계되어 세 개 집단 공히 중앙점 3점에 못 미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독정도가 깊을수록 다소간 문제행동을 더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교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사회문제'와 비슷한 점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중증중독집단의 평균점수도 3.500으로서 평균이용집단의 1.610보다 현격히 높으며, 역시 3점을 중앙점으로 볼 때 중증중독집단의 평균점수는 3점보다 다소 크게 나타나 학교생활에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다. 7가지 개별 문제행동의 유형에서 '대인 성문제'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유형에서 세 집단의 평균점수 차이는 세 집단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의 빈도와 정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이 강할수록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안석, 2001)와 일치한다. 또한 인터넷 중독자들은 알코올중독과 같은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생리적, 심리적, 학업적, 사회적, 직업적, 대인관계적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Young, 1996; Goldberg, 1996; 송명준 외, 2001)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 4) 사이버 성중독

##### (1) 사이버 성중독 현황

〈표 9〉 기본 속성 변인별 사이버 성중독 집단 분포

기본 속성		사이버 성중독			전체	Pearson x <sup>2</sup> - value	df	sig.
		평균이용 집단	초기중독 집단	중증중독 집단				
전 체		1563(92.4)	117(6.9)	12(.7)	1,692	-	-	-
학교별	중학교	567(93.6)	36(5.9)	3(.5)	606	25.044	4	.000
	인문고	417(96.5)	14(3.2)	1(.2)	432			
	실업고	580(88.7)	66(10.1)	8(1.2)	654			
학년별	중학교 1학년	67(100.0)	-	-	67	9.823	6	0.132
	중학교 2학년	500(92.8)	36(6.7)	3(.6)	539			
	고등학교 1학년	392(91.5)	30(7.0)	6(1.4)	428			
	고등학교 2학년	605(91.9)	50(7.6)	3(.5)	658			
성 별	남학생	892(88.8)	100(10.0)	12(1.2)	1004	46.375	2	.000
	여학생	672(97.7)	16( 2.3)	-	688			

앞의 조사도구에서 제시한 사이버 성중독 기준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사이버 성중독 점수를 합산한 후 세 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대상자의 기본속성 변인별로 분포를 나타낸 것이 〈표 9〉이다.

전체적으로 연구대상자의 92.4%(1563명)는 '평균이용집단'에 포함되었고, 6.9%(117명)는 '초기중독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7%(12명)는 '중증중독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평균이용집단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초기중독집단과 중증중독집단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교별, 집단별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모두 평균이용집단에 포함되는 등, 학년이 낮을수록 평균이용집단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한편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중증중독집단 또는 초기중독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평균이용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집단별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이버 성중독에 있어 대부분의 연구대상 청소년들이 아직은 평균이용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사이버 성중독 비율이 7.6%로 나타난 것은 상당히 우려할만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성과 관련된 증후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는데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 (2) 사이버 성중독의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본 항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성중독도 심리사회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세 개의 심리사회적 변인군과 각각 다중회귀분석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사이버 성중독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인과관계

〈표 10〉 사이버 성중독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상수	독립변인 - B값			R <sup>2</sup>	F	sig. F
		우울	충동성	자아존중감			
사이버 성중독	6.265	.106	.033	-.082	.021	11.788	.000
SE	1.890	.021	.016	.031	Method=stepwise		
T	3.316	5.036	2.043	-2.671			
Sig. T	.001	.000	.041	.008			

사이버 성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군 중 개인적 특성 변인군과 다중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10〉이다. 개인적 특성 변인군은 '우울' 변인, '충동성' 변인 및 '자아존중감' 변인으로 이 세 가지 변인과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사이버 성중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 즉, B값의 절대값(기울기)이 가장 큰 변인은 '우울'(.106)로 나타났다. 그 다음 영향이 큰 변인은 '자아존중감'(-.082)이었으며, '충동성'도 기울기가 .033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충동성' 변인의 기울기가 '정(+)'의 부호로 나타나 이들 변인들의 크기가 클수록 사이버 성중독이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부(-)'의 부호를 보이는 '자아존중감'이 커질수록 사이버 성중독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이 함수의 설명력은 .021이며, F 유의수준은 .000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이버 성중독도 앞서 살펴본 인터넷 중독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중 우울과 충동성을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높여줌으로써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우울, 외로움, 공격성을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 하위집단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에서 우울과 충동성은 비중독집단에 비해 중독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종범, 2000)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② 사이버 성중독의 가족환경에 대한 인과관계

〈표 11〉 사이버 성중독의 가족환경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상수	독립변인 - B값			R <sup>2</sup>	F	sig. F
		부부관계	부모의 양육행동	가족지지			
사이버 성중독	21.615	-.225	-.056	-	.031	31.519	.000
SE	.954	.037	.020	-	Method = stepwise		
T	22.656	-6.153	-2.819	-			
Sig. T	.000	.000	.005	-			

사이버 성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군 중 가족환경 변인군과 다중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11〉이다. 가족환경 변인군은 '부부관계',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지지' 변인으로 이들 세 변인 중 사이버 성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관계'와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정리되었다. 두 변인의 기울기는 모두 '부'(-)의 부호를 보였으며, '부부관계' 변인의 기울기가 -.225로 '부모의 양육행동' 변인의 -.056보다 크게 나타났다. 즉 사이버 성중독은 가족환경 중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이 좋을수록 억제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때 이 함수의 설명력은 .036이며, F 유의수준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부간의 불화정도가 높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지 못한 역기능적인 가족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은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지게 되어 인터넷 음란물이나 음란 채팅에 중독적으로 몰입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③ 사이버 성중독의 사회환경에 대한 인과관계

〈표 12〉 사이버 성중독의 사회환경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상수	독립변인- B값			R <sup>2</sup>	F	sig. F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사이버 성중독	15.942	-.210	-.178	-	.025	21.509	.000
SE	.774	.038	.037	-	Method = stepwise		
T	20.601	-5.480	-4.827	-			
Sig. T	.000	.000	.000	-			

사이버 성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군 중 사회환경 변인군과 다중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12〉이다. 사회환경 변인군은 '친구관계', '교사관계' 및 '학교생활 만족도' 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세 변인 중 사이버 성중독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친구관계'와 '교사관계'로 나타났다.

두 변인의 기울기는 각각 -.210과 -.178로 모두 '부'(-)의 부호를 나타내어 친구관계나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사이버 성중독은 억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이 함수의 설명력은 .025이며, F 유의수준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터넷상에서의 친구관계 기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으며,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의 친구관계 만족도가 감소하여 일상생활과 인터넷상의 친구관계 만족도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밝힌 연구(시주현, 2001)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 (3)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성중독과의 관계

본 항에서는 앞서 살펴본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성중독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성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13〉 사이버 성중독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상수	독립변인 - B값	R <sup>2</sup>	F	Sig. F
		인터넷 중독			
사이버 성중독	8.463	.122	.061	110.684	.000
SE	.596	.012	Method = simple		
T	14.190	10.521			
Sig. T	.000	.000			

사이버 성중독 정도를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사이버 성중독 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13〉이다. 사이버 성중독 변인의 기울기가 .122로 나타나 두 변인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1단위 늘어날 때마다 사이버 성중독은 .122단위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터넷 중독을 줄여줌으로써 사이버 성중독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이 함수의 설명력은 .061이며, F 유의수준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중독 정도와 음란물 접촉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안정임, 2000)에서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심한 청소년일수록 음란사이트 접속이나 음란채팅 등 음란물 접촉 빈도와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채팅상대를 현실에서 만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음란채팅이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여성에 대한 비하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지각하게 되는 잘못된 성의식 등의 문제를 나타낸다(조아미, 2002). 이러한 내용들은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이버 성중독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 청소년의 성태도와 사이버 성중독

청소년의 성태도는 이명화가 빈안한 척도를 이용하여 '성개방성', '성평등성' 및 '성공정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이들 세 가지 성태도를 5점 척도의 평균점수로 산출하여 사이버 성중독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고, 성태도 변인과 사이버 성중독과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① 사이버 성중독집단간 성태도의 차이

〈표 14〉 사이버 성중독집단간 성태도 평균점수 분석 결과

성태도 구분	평균이용집단 (집단 1)	초기중독집단 (집단 2)	중증중독집단 (집단 3)	F	P	Scheffe test
성개방성	2.922 (.668)	2.926 (.538)	4.017 (1.155)	16.202	.000	집단 1과 3 집단 2와 3
성평등성	3.043 (.826)	3.108 (.907)	3.521 (1.145)	2.248	.106	-
성공정성	2.344 (.715)	2.709 (.736)	3.458 (1.393)	27.279	.000	집단 1과 2 집단 2와 3 집단 1과 3

청소년의 세 가지 성태도를 사이버 성중독집단별로 평균점수를 분석하고자 ANOVA 분석하여 집계한 것이 〈표 14〉이다. 먼저 '성개방성'의 경우 중증중독집단의 평균점수는 4.017점이고, 평균이용집단과 초기중독집단은 각각 2.922점과 2.926점으로 집계되었다. 즉, 사이버 성중독의 정도가 심할수록 '성개방성'도 심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개방성은 평균점수가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데 평균이용집단과 중증중독집단간 그리고 초기중독집단과 중증중독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두번째, '성평등성'의 평균점수도 사이버 성중독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공정성' 또한 사이버 성중독의 정도가 클수록 성공정성의 평균점수도 크게 나타났다. 중증중독집단은 3.458점, 초기중독집단은 2.709점, 그리고 평균이용집단은 2.344점으로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인다. 즉, 사이버 성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성공정성의 평균점수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겠다. 이는 세 집단의 평균점수 차이는 세 집단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이버 성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여성 비하 의식의 증가와 성의식 및 태도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견해(이혜경, 2002)와, 인터넷 음란물을 접한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성관련 정서 및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높다는 견해(홍은숙, 2001), 그리고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된 경우 성적 충동을 성폭행으로 해결하거나 근친상안이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하게 하는 왜곡된 성의식 및 태도가 나타날 수 있

다는 견해(조아미, 2000)가 본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나 음란 채팅 등은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들며 건전한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고 나아가 청소년 성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 ② 사이버 성중독의 성태도에 대한 관계

〈표 15〉 사이버 성중독의 성태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상수	독립변인 - B값			R <sup>2</sup>	F	Sig. F
		성개방성	성평등성	성긍정성			
사이버 성중독	11.609	-	-.140	.489	.050	44.200	.000
SE	.651	-	.046	.052	Method = stepwise		
T	17.831	-	-.301	9.391			
Sig. T	.000	-	.002	.000			

성태도 변인 중 사이버 성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평등성'과 '성긍정성'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성긍정성'의 기울기는 .489로서 '성평등성'의 -.140보다 절대값이 크고 부호가 서로 '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즉, '성평등성'이 좋아지면, 사이버 성중독의 경향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긍정성'이 좋아지면 사이버 성중독 경향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설명력은 .050이며, F 유의수준도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성에 대해 남녀간에 차별없이 동등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클수록 사이버 성중독의 가능성은 감소되고, 성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러울수록 사이버 성중독의 가능성은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며, 인터넷 중독수준에 따라 어떠한 행동양태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사이버 성중독의 원인과 중독수준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첫째, 인터넷 중독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 연구대상 청소년의 2% 정도가 심각한 '중중중독' 상태에 있었으며, 약 47% 정도가 중독의 위험에 빠져있는 '초기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 중 우울과 충동성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이 나쁠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인터넷에 더 많이 중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 중독으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가족문제, 사회문제, 신체문제, 심리문제, 대인 성문제, 사이버 성문제, 학교문제의 7가지로 유형화 되었으며,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사이버 성중독의 정도는 연구대상 청소년의 0.7%정도가 심각한 '중중중독' 상태에, 약 7%정도는 중독의 위험에 빠져있는 '초기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이버 성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 중, 우울과 충동성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부관계와 부모의 양육행동이 나쁠수록, 친구관계와 교사관계가 나쁠수록 사이버 성중독에 많이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이버 성중독은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개방성, 성평등성, 성공정성의 성태도 모두 사이버 성중독의 '중중중독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초기중독집단'과 '평균이용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우울하고 충동적이며 자아존중감이 낮고, 부모의 양육행동이 역기능적이거나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높으며, 중독중세가 심할수록 문제행동을 더 많이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사이버 성중독도 심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청소년들이 우울과 충동성에 빠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으며, 가정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욱 긍정적으로 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생활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성중독이 예방 및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성중독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개입방안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인터넷 및 사이버 성중독은 충동조절장애와 함께 대인기피증 등 사회적 적응에 장애를 일으킨다. 특히 성장단계에 놓인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 정서적 발달과 정체성 확립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성인보다 훨씬 큰 후유증을 앓게 된다. 이러한 중독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울과 충동성을 줄이기 위한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실천모델 중 인지행동모델은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중독 같은 중독성 행동에 치료적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중독행동에는 왜곡된 인지와 부적절한 대처기술이라는 인지행동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중독의 경우 게임이나 음란물 접속, 음란채팅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나, 억압된 성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는 자동적 사고가 떠오르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인터넷에 더욱 몰두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왜곡된 인지구조가 수정될 수 있도록 개입함으로써 중독행동이 조절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가족환경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할 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청소년기 자녀의 특성이나 욕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거나 적절한 감독이나 규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원, 2001).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원활한 의사소통관계를 유지한다면 인터넷 및 사이버 성 중독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교육은 청소년 전문기관이나 상담소, 사회복지관, 청소년 쉼터, 학교 등에서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중독의 예방적 측면에서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생들인 점을 감안하여 학교에서 특히 학교사회사업가들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고, 친구관계와 교사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터넷 및 사이버 성중독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부적응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학교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부적응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따른 통제와 억압적 분위기,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감, 교우관계로부터의 편견이나 소외 등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러한 부적응의 문제는 진인적인 교육과 교사와의 신뢰관계를 통해 극복될 수 있으나 현실적 상황은 단기적 처방에 의해서 해결되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민간체계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제도를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공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사회사업가는 학생의 부적응 문제에 대해 사정하고 상담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교, 가정, 지역 사회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의 개입을 통해서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사이버 성중독에 있어 '평균이용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이버 성중독의 해악성을 고려할 때 이미 심각하게 중독되었거나 초기중독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7.6%에 이른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 하겠다. 실제 인터넷상에 일어나는 사이버 범죄의 절반은 10대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고(중앙일보, 2001. 3. 26), 청소년들이 인터넷 음란정보로부터 받는 악영향은 학업에 지장을 받고, 성충동이 증가하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를 갖게 되며, 음란물이나 음란채팅을 탐닉하는 사이버 성중독 현상을 보이고, 성폭력과 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로 나타난다(한국청소년상담원, 1999). 청소년들을 사이버 성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일차적으로 부모들의 관심과 개입이 가장 중요하다. 컴퓨터를 밀폐된 공간보다는 거실 같은 공개된 장소에 두고 부모들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인터넷 이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자세히 지도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가상공간 외에서도 재미와 흥미를 줄 수 있는 취미나 여가활동의 개발은 사이버 성 중독을 막는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 인터넷 중독의 정도와 사이버 성중독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

한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극소수라 할지라도 중증중독 상태에 있는 청소년 개인에게는 성장기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초기중독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분포가 상당히 많고, 인터넷의 이용빈도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을 감안하면 이점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영향 및 관련변인들을 모두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인터넷 사용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김선우. 2002.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석·박명숙. 2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2호, pp. 83-106.
- 김종범. 1999. "인터넷 중독 하위집단의 특성 연구 - 자존감, 우울, 외로움,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 2001. "현실공간 없이 사이버 공간이 존재한다?: 인터넷이 개인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사례", 『정보통신윤리』 2001.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김혜원. 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악과 관련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8권 제2호, pp. 91-117.
- 라민오. 2001. "충동성, 인터넷 중독 경향과 청소년의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김유경. 1997.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32호, pp. 113-135.
- 송명준 외. 2001. "인터넷 중독: 중독적 특성, 중독의 결과 및 중독자의 하위유형", 『심리검사 및 상담연구』 제5권, pp. 311-323. 고려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송원영. 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영희. 2001.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성폭력상담소.
- 안 석. 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정임·김동규.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증후군 및 음란물 접촉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엄명용. 2001.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가족 내 부모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제8호, pp. 148-176.
- 윤재희. 1998.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 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화. 1998.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갈등에 성태도와 지식이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 2000. "게임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문제 해결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해경. 2002. "청소년들의 음란물, 음란채팅, 폭력게임 중독 경험에 대한 비교분석",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1호, pp. 91-114.



- 이형초, 2001. "인터넷게임 중독의 진단척도 개발과 인지행동치료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인터넷중독온라인치료센터. <http://www.psyber119.com>
- 인터넷중독정보센터. <http://www.cyadic.or.kr>
- 조선일보, 2002. 1. 18. 10대 52% "방학중 인터넷 하루 세 시간 이상".  
 \_\_\_\_\_, 2002. 4. 10.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오픈".
- 조아미,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및 중독관련 문제점 및 대책", 『2000년 청소년·법·심리 법심리학  
 회 심포지움 논문집』, pp. 17-37.
- 조준범,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중앙일보, 2001. 3. 26. "연애인 동영상 3시간이면 구해".  
 청년의사인터넷중독치료센터. <http://www.ventmentalhealth.fromdoctor.com>.
- 한겨레신문, 2002. 1. 15. "국민 2명중 1명꼴로 인터넷 이용".  
 \_\_\_\_\_, 2002. 4. 23. "현실과 사이버 세상은 구분해야".
- 황수정,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지지 지각 및 사회적응력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홍은숙, 2001.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관련 정서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 Brenner, V. 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VII.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The first 90 days of the internet usage survey, *Psychological Reports*, 80, 879-882.
- Goldberg, I. 1995.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supportg-p.html>.
- Greenfield, D. 1999. The Nature of Internet Addiction: Psychological Factors in Compulsive Internet  
 Use. Presentation at the 1999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internetaddiction.htm](http://internetaddiction.htm).
- Griffiths, M. 1997. Does internet and computer addiction exist? some case evidence.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PA annual convention, Chicago.
- Griffiths, M. 1998. *Psychology and the Internet*. Academic Press.
- Griffiths, M. D. 1999. Internet addiction, *The psychologist* 12(5), 246, 250.
- Scherer, K., & Bost, J. 1997. *Internet use patterns: Is there internet dependency on campus?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 Suler, J. 1996.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  
 cybaddict.html](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cybaddict.html).
- Suler, J. 1997. Healthy and Pathological Internet Use.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  
 healthyinternet.html](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healthyinternet.html).

- Suler, J.(1999). Internet Addiction : in a nutshell.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healthyinternet.html>.
- Thompson, S. 1996. Internet Addiction McSurvey results. <http://cac.psy.edu/~sit112/mcnair/journal.html>.
- Young, K. S. 1996a.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 237-244.
- Young, K. S. 1996b.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ake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1996, 79, 8999-902.
- Young, K. S. 1997. Levels of depression and addiction underlying pathological Internet use. Post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Young, K. S. & Rodgers R. C. 1998a. Internet Addiction : Personality Traits associated with Its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69th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in April.
- Young, K. S. 1998b.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 1, Num 1. [www.netaddiction.com/articles/cyberpsychology.htm](http://www.netaddiction.com/articles/cyberpsychology.htm).
- Young, K.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http://netaddiction.com/articles/symptoms.htm>.
- (Young, O'Mara, Buchanan, 2001).

## A study on the psychosocial variables of the youth's addiction to internet and cyber sex and their problematic behavior

Nam, Young-Ok

(Assistant Professor of Social Welfare, Ha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youth's addiction to Internet and what behavior do they show depending on the extent of addiction, and further to analyze the reason of cyber sex addiction and the addiction level.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2% of the target students of the study was in severe internet addiction and 47% in the 'early addiction' which is in the risk of addiction. Second, the larger the youth's depression and impulsiveness was, the lower their self-esteem was, the poorer their parents' bringing-up attitude was, and the lower their satisfaction to school life was, the more deep they are addicted to internet. Third, the problem behavior due to Internet addiction were categorized into seven area of trouble; family, social, physical, psychological, public relation, cyber sex, and school life. It showed that 'heavily addicted group' had the most severe problems. Forth, as to the extent of cyber sex addiction, 0.7% of the youth was in severe 'heavy addiction' and about 7% was in the 'early addiction' which is in the range of addiction risk. Fifth, the higher the youth's personal depression and impulsiveness was, the lower their self-esteem was, the poorer their parents' couple relation and bringing-up attitude were, and the worse their relation with peers and teachers was, they got indulged into cyber addiction.

[접수일 2002. 6. 7    게재확정일 2002. 6. 22]